13-08 2013.02.05.

현안과 과제

세계 경기 회복의 다섯 가지 단초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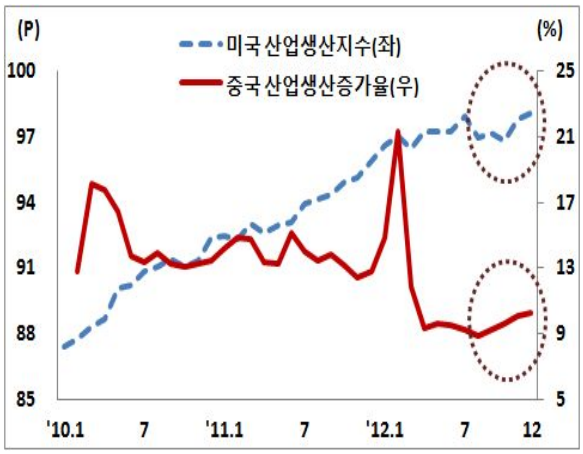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 **2012년 하반기 미국과 중국의 산업생산이 반등하고, 주요국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서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 미국의 산업생산은 2012년 10월 이후 연속 3개월 상승세를 보이며 12월 98.1로서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2012년 4월 급락한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12월 10.3%로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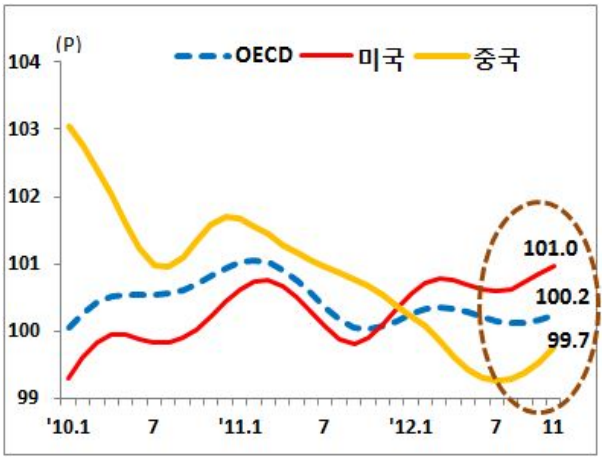
-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선행지수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G2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됨**
  -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2년 7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도 100을 하회하고는 있으나 2012년 7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하여 2012년 11월 99.7을 기록
  - OECD 전체의 경기선행지수는 2012년 8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100.2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경기가 현재보다 개선될 전망
  -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향후 G2가 주도하는 세계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의 산업생산 추이 >



자료: 미국 연준, 중국 국가통계국.
주: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임

< 미국과 중국,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



자료: OECD.

2. 세계 경기 회복의 다섯 가지 단초

①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 주택 경기의 회복세

○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 부의 효과 등으로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 본격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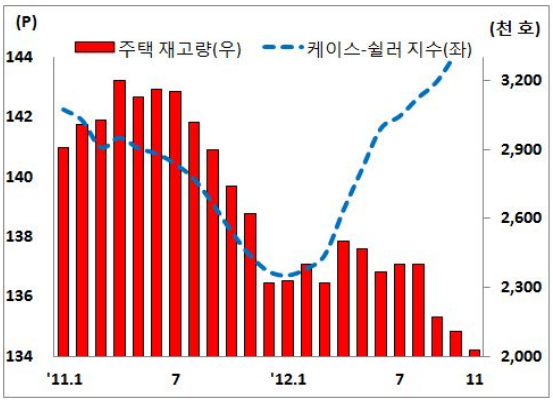
- 주택 재고물량 해소 및 주택 가격 상승세

- 미 연준(Fed)의 양적완화를 통한 주택담보부 채권 매입 등으로 2011년 300만호를 상회했던 주택 재고량이 2012년 11월 현재 200만호 수준으로 감소
- 미국 2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케이스-쉴러 가격지수도 2012년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10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잔여가치의 증가와 모기지연체 감소, 차압된 담보주택의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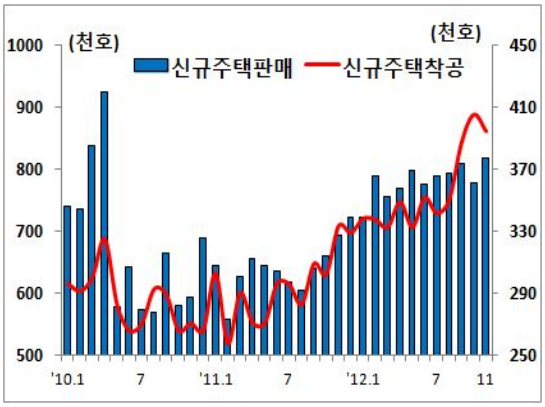
- 신규 주택 판매 증가와 선행지수 상승세 지속

- 2010년 주택가격 하락으로 급감했던 신규주택판매는 2012년 개선되어 전년대비 19.9% 증가한 36만 7,000여호로 3년래 최대치를 기록
- 부동산 경기 악화로 월평균 50만호 수준에 불과하던 신규주택착공건수도 부동산가격의 상승세 및 수요 증대로 2012년 11월 현재 86만호에 달함
- 주택시장 가격의 선행지수인 주택시장지수(HMI: Housing Market Index)는 2013년 1월 47로 기준점인 50을 하회하고 있으나 8개월 연속 상승[1)]

< 주택 재고 및 주택 가격 지수 추이 >



< 신규 주택 판매와 착공건수 추이 >



1) 주택시장지수(HMI: Housing Market Index)는 미국주택건설업체(NAHB)와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 공동으로 발표하는 지수로, 지수가 50 미만이면 6개월 후에 주택시장 침체, 50 이상이면 주택시장 호조, 50이면 중립적인 전망을 의미.

자료: 미국 상무부 자료: 미국 노동부. 상무부

②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 경기 회복세

○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세계 2위의 수입시장인 중국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세계 수출 경기도 회복되는 효과가 기대

- 최근 수출증가율 반등에 따르는 수출 경기 회복 조짐

- 12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4.1%로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도 316억달러로 전망치인 200억달러를 크게 상회[2)]
- 분기별 수출은 2/4분기에 10.5%에서 3/4분기 4.5%로 감소했으나, 4/4분기 들어 9.4%의 증가세로 반등하면서 수출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최대 수출국인 대미 수출 경기 호조

- 11월 -2.9%까지 하락했던 대미 수출증가율은 12월 들어 10.4%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
- 대외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미 무역수지는 전월 177억달러에서 12월에 187억달러로 증가하였고, 12월 전체무역수지도 전월의 196억달러에서 316억달러로 큰 폭의 증가세

- 수출 회복의 영향으로 내수 경기 동반 회복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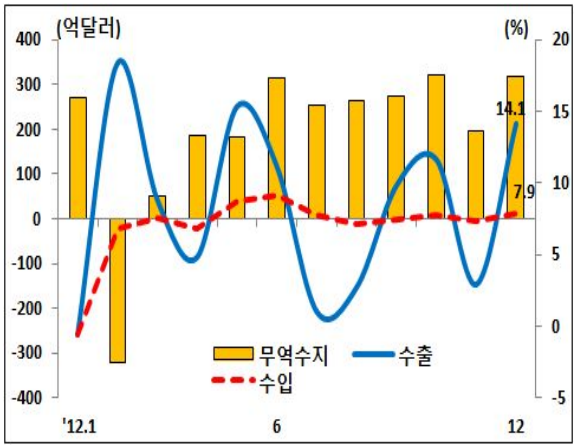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이후 8분기만에 성장률이 상승세로 반전. 4/4분기 소비는 3/4분기보다 높은 0.3%p 증가했고. 고정자산 투자도 증가세 유지
-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11월 관방 제조업 PMI지수는 2개월 연속 50선을 상회. HSBC 제조업 PMI 지수도 13개월 만에 50선을 상회한 50.5p를 기록

<2012년 중국 수출입 증가율 추이>

<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

구분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GDP	9.2	8.1	7.6	7.4	7.9	7.8
수출	20.3	7.6	10.5	4.5	9.4	7.9
소비	17.1	14.8	13.9	14.1	14.4	14.3
투자	23.8	20.9	20.4	20.5	20.6	20.6

2) 중국 해관총서. 2013. 1. 21.



자료 : 중국 해관총서.

산업 생산	13.9	11.6	9.5	9.1	10.0	10.0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Bloomberg.

③ 유럽 재정 부채 위기의 점진적 해소

○ 재정 부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의 효과로 세계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유로존 재정 위기가 점차 축소되는 양상

- 유로존 공동 대응책에 따른 효과가 점차 가시화

- 재정위기국에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금융안정망(EFSF/ESM)[3]의 설립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방지됨
-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던 종래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전환하여 2012년 9월 유럽중앙은행은 '무제한국채매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OMT)'을 결정함[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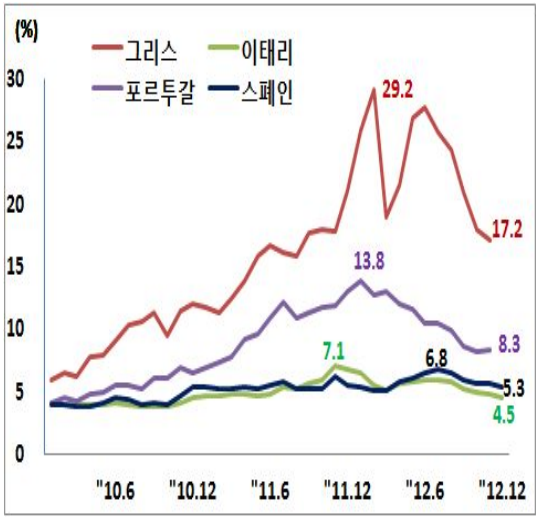
-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PIIGS[5]는 부도위기가 축소 및 국채 수익률 하락

- 그리스는 2012년말 구제금융의 지원과 국가채무감축시행 연장으로 부도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국가신용등급 6단계 상향 조정
- 스페인의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부도 임계선인 연6% 이상이었으나 2013년 1월 현재 5% 내외로 안정세를 보임

< 유럽 재정위기 공동대응방안 >

주 요 내 용
- 유로존 정상회의(2011.7.21)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EFSF 개정 (보증규모 확대: 2,550억 → 4,400억 유로)
- 유로존 정상회의(2011.10.26) ・은행자본확충 ・그리스 국채 손실률 확대(21% → 50%)
- EU정상회의(2011.12.9) ・신재정협약 체결 ・ESM 조기도입(2012년 7월)
- EU정상회의(2012.6.28) ・EFSF/ESM의 부실은행직접지원·국채직매입허용 ・무제한국채매입 선언

< 10년 만기 국채금리 추이 >



3) '유럽재정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은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을 막고 재정위험국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 5월 유로지역 17개국이 설립한 한시적 특수목적투자기구이며, 2012년 7월 유럽 지역의 상시 금융안정기구인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과 통합(이경아. 「자본시장제도 이해: 유럽재정안정기금」. 보험연구원. 2012년 1월)

4) 유럽중앙은행 Press Conference(2012년 9월 6일)

5) PIIGS는 포르투갈(Portugal)과 아일랜드(Ireland), 이태리(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 임.

자료: 주요 기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재정리.

자료: OECD.

④ 브라질 고용 호조세와 외국인 투자 열기 지속

○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중남미 GDP의 44%)의 실업률 하락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와 월드컵 등의 개최에 따르는 외국인 투자 열기의 지속 등으로 중남미 전체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 실업률 하락세 지속과 경기 선순환

· 실업률은 2012년 상반기 상승세를 보이며 6.5%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7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012년 12월 현재 4.9%로 11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실업률 하락으로 중산층 확대 및 빈곤층 감소가 이뤄지고 가계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발생. 특히 산업생산지표는 2012년 8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012년 11월 2.5%로 플러스 증가율 기록

- 브라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호조세 지속

· 2012년 경기침체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급감이 예상되었으나 지난해 사상 최대치였던 667억달러와 비슷한 653억달러 유치하여 세계 4위를 차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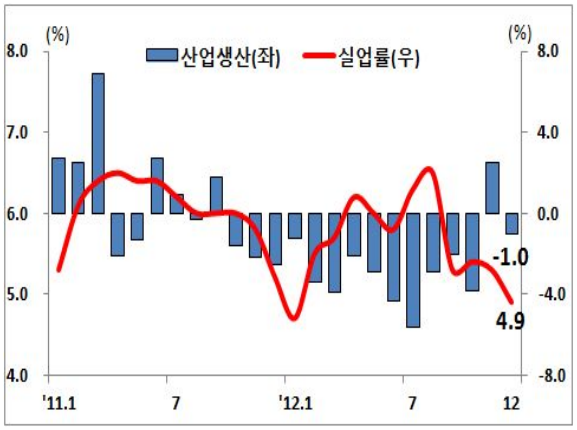
· 2010년 1/4분기 9.3%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성장률은 3/4분기 0.9%를 기록하며 10분기 만에 상승세로 반전

· 경기선행지수는 2012년에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6년 리우 월드컵 개최 등 국제이벤트로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이 더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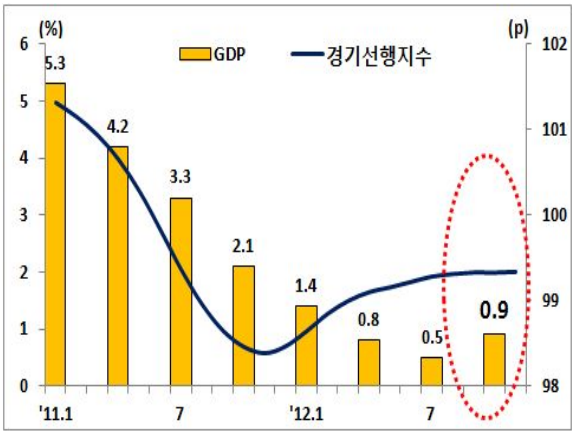
<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추이 >

< 브라질 GDP와 경기선행지수 >

6)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OECD.

⑤ 바트경제권[7]과 아프리카 신흥국의 새로운 부상

○ 아시아지역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바트경제권과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와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신흥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생산 기지와 거대 소비 시장으로 바트경제권이 새롭게 부상

· 인구 2억명 규모의 바트경제권이 세계 경제총생산(GDP)에서 비중은 2000년의 0.5%에서 2012년에는 0.8%로 증가하고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향후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바트경제권의 최저 임금은 중국보다 낮아 글로벌 생산가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증가 추세

- 아프리카는 천연자원 개발로 외국인직접투자와 중산층이 증가

· IMF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기대수익(1991~2008년 동안 17.8%)은 기타 신흥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FDI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8]

· 천연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조업 등의 발전이 최근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9], 소득 증가 및 중산층의 비중 증대로 소비 시장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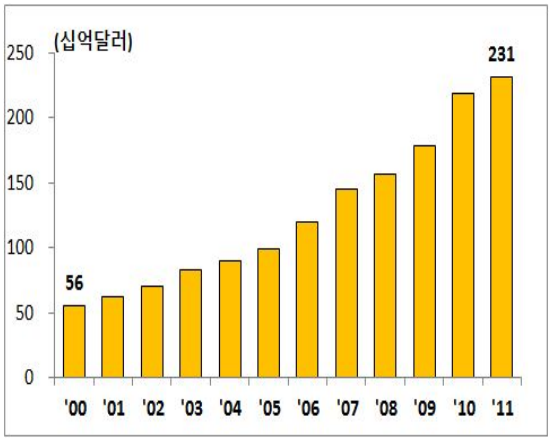
<바트경제권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바트와 아프리카 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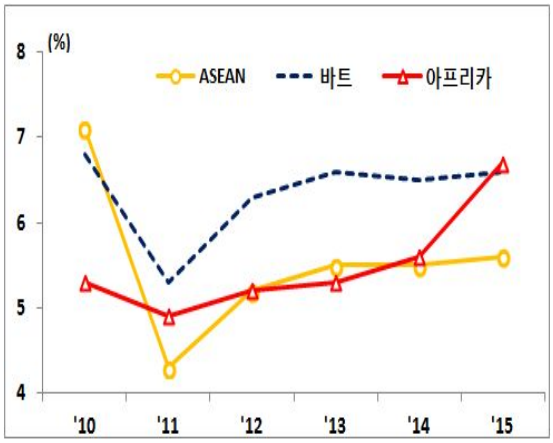
7) 바트경제권이란 태국의 화폐인 바트(Baht)화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소규모 경제권을 의미. 일반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5개 국가가 포함됨(현대경제연구원. 「바트경제권의 부상과 사업기회의 모색」. HRI 체어퍼슨노트. 2012년 10월).

8)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2011. October.

9) Knaup, Horand and Jan Puhl. "*Africa's Growing Middle Class Drives Development*". Spiegel. 2012년 7월 6일자 보도



자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3. 대응 과제

○ **여전히 정치 및 경제 리스크가 상존하나, 최근의 세계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빠른 회복세가 기대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여건을 만들어야 함**

- 주요국 재정 악화 및 정치 혼란에 따르는 세계 경제 불안요인은 상존함
  - **미국 재정리스크 :** 정부예산지출 삭감이 3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타협안이 원만히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재정절벽 위기 재발 우려
  - **유럽 정치리스크 :** 2월 24일에 실시될 이탈리아 총선에서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할 경우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재부상할 우려
  - **일본 환율리스크 :**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 조치와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한·중·일간 환율 전쟁 발생 우려 증대

- **하지만, 이같은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이 해소될 경우 빠른 세계 경기 회복이 예상되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첫째,** 미국과 중국 경기의 회복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수출 지원 대책이 필요
  - 한미 FTA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한편, 미국 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대책 마련
  - 중국 경기 회복과 내수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한류 등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 **둘째,**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를 대비하며 신흥개도국과의 경협 사업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국 내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특히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등 주요 국제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내수 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함
  - 또한 새로 부상하고 있는 바트경제권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보험 확대 및 한류 마케팅 활용 등으로 시장 진출 지원

- **셋째,** 세계 경기 회복에 대비하여 기업의 진출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 G2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에 대비하여 기업의 세계 진출과 사업 다각화 및 확대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강화
  -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대비한 선제적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

최성근 선임연구원 (csk01@hri.co.kr, 02-2072-6223)
홍준표 연구위원 (jphong@hri.co.kr, 02-2072-6214)